

#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 The Relations of Children's Self Esteem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Their Father by Children's Perceptions

홍달아기 · 이남주 · 채옥희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 · 아동복지학전공

Hong, DalAhGi · Lee, NamJu · Chae, OckHee  
Dept. of Family Welfare,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ender relation of children's self esteem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their father by children's perception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805 middle school girls in Jeonbuk province. Respondents answer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ere influenced by all the factors like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of parent, the type of marriage, living level and grade of children except the type of family. 2) Children's self-esteem level was found to be above average. Parent-child related variables affected on children's self-esteem but children's self-esteem in school was not affected by the parent's education level. 3) The self-esteem and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showed a strong correl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whole self-esteem and the self-esteem in school were mainly affected by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fathers.

**Key words** : self esteem, gender equality,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 I. 머리말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급격하게 변해왔지만 유교적 전통과 윤리관이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스며있는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우리의 성차별의식과 사고는 크게 변하지 못한 채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적 차별의 극복에 의한 인권의 신장이 사회발전의 화두로 제시됨에 따라 의견상 전체 사회 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성적 편견이 없고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능력있는 전문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육체적인 힘과 같은 물리적인 능력보다도 성을 초월한 정보처리능력, 창의력, 기획력, 판단력 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본 연구는 2001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Hong, Dal-Ah-Gi

Tel : 063) 850-6652 Fax : 063) 850-7301

E-mail : dalhong@Wonkwang.ac.kr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성을 지닌 사회인으로서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을 알고, 부모의 태도변화와 교육에 의해 양성평등한 교육을 실천해야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최초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가정내 부모와의 접촉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비교적 단순하고, 순수하고 애정적이며, 반복적, 계속적 관계이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이 가지는 최초의 관계로 향후 가지게 될 모든 대인 관계의 모체가 됨으로 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성역할 사회화는 태어나면서 곧바로 부모에 의해 시작되며 자라면서 학교와 사회에 의해 이루어진다(정혜정, 2001).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이분화는 어린시절 인성을 결정하는 가정에서부터 제도 교육은 물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전반의 생활관습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전통적인 성고정관념 및 성역할태도가 여전히 가정 안에서 뿌리내리고 있어 자녀들로 하여금 성고정관념 및 성차별을 당연시 여기게끔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임정순, 2002).

성별에 따른 역할분리는 여성을 주부, 어머니, 출산, 양육, 가사노동의 담당자, 남성에 의한 생계 의존자, 경제능력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남녀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집단적, 평균적 차이와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초한 역할기대에 근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성차별을 고착화하게 된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차별을 사라지게 하기위하여 남성의 역할은 여성의 역할변화와 함께 변화되어야 함은 필연적이다. 한쪽 성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의 관념, 남녀의 정형화된 역할에 기인하는 편견, 관습, 기타 관행의 철폐가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원인 가부장성과 전통적 역할에 근거한 성역할분리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양성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선옥, 2000). 즉 남·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역할 편견이나 성고정화된 역할관을 수정하려면 남성과의 협력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박영신, 1977).

그동안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모든 활동은

어머니가 주책임자로 인식되었으며, 아버지는 보조자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 특히 자녀들에게는 상징적인 권위만으로도 교육적 책임을 다한다고 인식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혼과 미혼모의 급증으로 부성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청소년 문제의 배경에는 부성상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편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가출·폭력 등의 문제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Coleman(1988), McLanahan와 Sandefur(1993), 그리고 Popenoe(1996) 등의 연구와 아버지의 애정어린 양육태도는 아들의 남성성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딸의 여성성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준다(장은미, 1999). 그러므로 남·녀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협력이 없이는 자녀에게 올바른 양성성을 형성해줄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Coleman(1988)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조적인 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 부모자녀관련변인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부모자녀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남녀의 지위로 인한 권리, 의무, 대우 등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장수희, 2001), 양성평등의식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같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다(임정순, 2002). 한편 여성개발원(1999)에서는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남녀평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은 성에 따른 적절한 역할과 권리, 차별적 행동과 성고정관념에서의 자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역할관련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성역할태도 즉,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 이다(임정순, 2002).

먼저 성별에 따른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며(Jacobson, 1962; 이형실, 1985; Tomeh, 1978), 양성평등의식도 높게 나타났다(정혜윤, 2001; 현영자, 2000). 또한 정숙경(2000)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자신의 양성평등의식정도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인 반면, 여성은 60% 이상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적 환경 및 가치와 관련이 깊으므로 양성평등의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숙자(1978), 김영규(1998)와 Parelus(1975)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으며, 정숙경(2000)과 여성개발원(199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세용(1997)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적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함께 자주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보고하고 있어 아버지의 연령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양성평등의식과 정적인 관계가 있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개발원, 1999; 한기숙, 2000),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성역할태도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정종희, 1983; 김영규, 1998; Hoffman, 1977). 더욱이 정종희(1983)는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교육수준이 여성으로 하여금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게 하며, 가정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도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이세용, 1997)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할 때 월등히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며(변화순, 1980; 박태은, 1983; 안운진, 1990), 노동계층에 비해 중류계층의 부모가 덜 성차별적이고(Kelley, 1982), 일반적으로 노동계층은 위계관계나 성별분업의 구분이 확실하여 성역할을 구분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Wolp, 1976). 한편 한기숙(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내 수입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인 경우에 자녀가 양성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미숙(1980), 김영규(1998)과 정종희(1983)는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생활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판단, 감정 및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아지각, 자아평가, 자기효능감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의 중요성, 유능함, 그리고 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 형성하고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자기평가라고 정의하면서 일반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정과 부모 관련 자아 그리고 학업관련자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들의 총합을 자아존중감으로 보았다(Coopersmith,

1982). 자아존중감은 한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나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Hater, 1982; Pope, McChale & Craighead, 1988; 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90; 김희화, 1998; 최보가 & 전귀연, 1993). 그런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특수영역 예를 들어 가정·학교·또래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므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접근은 자기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물론 가정·학교·또래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관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밝히고자 한 Rosenberg(1965)의 연구에서 부모의 관심, 종교, 출생 중 부모가 관심 있는 것들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최사라, 2001)이라고 하였으며 이승희(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 아버지 각각의 언어통제 유형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해숙(1999)은 자녀의 자존감은 성별, 경제적 지위별, 부모의 교육수준별, 부모의 직업별, 부모의 동거형태별 여러가지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한병희(1983)는 성역할은 한 개인의 능력, 태도, 성격, 인간관계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 역할자의 성취동기 수준을 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성취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아개념 및 자아실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윤미현(1983)은 여고생의 성역할정체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이 가장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숙(1984)과 정옥분(1986)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성역할정체감과 매우 높은 유의미성이 있는 것임을 밝혔다. 김영규(1998)는 성고정관념과 자아개념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고 직업역할과 가정적 역할의 순으로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는 학생들은 성역할의 하위변인중 직업역할이 자아개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성역할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양성평등 의식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남녀의 지위로 인한 권리, 의무, 대우 등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장수희, 2001)하며, 성에 따른 적절한 역할과 권리, 차별적 행동과 성고정관념에서의 자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태도에 관한 설문(김양희·정경아, 1999; 임정순, 2002; 정종희, 1983)을 참고하여 아버지의 양성평등 의식을 묻는 문항을 본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도록 보완·수정하였다. 요인 분석한 결과 가정적 성역할의식, 사회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그리고 성규범 영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성규범 영역은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시 '아들우대', '여성종속', '생활규칙'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가정적 성역할의식(.83), 사회적 성역할의식(.77), 성고정관념(.73), 성규범영역의 아들우대(.67), 여성종속(.71), 생활규칙(.7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양성평등적인 성역할의식을,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역할의 분리와 차별화에 동조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로부터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차별에의 경험을 묻는 질문과 아버지에게 갖는 불만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 2) 자아존중감

Coopersmith(1967)와 Pope, McChale, Craighead 등(1988)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체적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등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

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03년 5월부터 6월까지 전라북도 여중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900부를 배포하여 856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를 제외한 총 80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태도와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 < 0.05$ ).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로부터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차별에의 경험을 묻는 질문과 아버지에게 갖는 불만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결과는 절반이상의 학생이 성차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많은 아버지들이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성고정관념과 여자라서 해서는 안되는 생활규칙 아들을 우대하는 태도 가정에서의 집안일과 청소를 당연히 여자가 해야한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에게 성차별은 규범적 측면에서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성차별보다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술·담배를 많이 한다 잔소리를 한다 욕설을 한다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이해해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부모자녀관련변인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부모자녀관련 변인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면 가정적( $P < 0.001$ )·사회적( $P < 0.01$ )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P < 0.01$ ) 및 여성종속( $P < 0.01$ ) 영역에 있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규범의 하위영역 중에서 아들우대(NS)나 생활규칙(NS)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가정적 성역할 의식은 아버지가 대졸( $M=1.50$ )인 집단보다 중졸( $M=1.90$ )인 집단의 자녀들이 더 전통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사회적 성역할 의식은 아버지가 중졸( $M=2.06$ )인 집단의 자녀들이 초졸이하( $M=1.44$ )인 집단의 자녀들보다 아버지가 전통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아버지의 성고정관념은 아버지가 대졸( $M=1.85$ )인 집단의 자녀들보다 초졸이하( $M=2.35$ )인 집단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성규범 영역에 있어서는 여성종속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이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가정적( $P < 0.001$ )·사회적( $P < 0.01$ ) 성역할 의식, 성고정관념( $P < 0.01$ ) 및 여성종속( $P < 0.01$ ), 생활규칙(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가정적 성역할 의식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성역할 의식은 어머니가 대졸( $M=1.54$ )인 집단보다 중졸( $M=2.01$ )인 집단에서, 성고정관념은 초졸이하( $M=2.56$ )의 집단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양성평등의식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종속과 생활규칙은 초졸인 경우가 대졸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성평등 의식이 낮음을 보여준다. 아들우대 영역(NS)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규범 영역중에서는 여성종속과 생활규칙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여, 다른 학력집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부모의 학력	아버지	초등학교졸업	8	1.0	아버지 형제순위	외동	79	10.6
		중학교졸업	45	5.8		만이	149	19.9
		고등학교졸업	349	45.3		차남	519	69.5
		대학교졸업	368	47.8		계	747	100.0
	계	770	100.0	가족 형태	동성형제	207	26.5	
	어머니	초등학교졸업	11		1.4	이성형제	446	57.2
		중학교졸업	57		7.5	외동	14	1.8
		고등학교졸업	463		60.7	확대가족	90	11.5
		대학교졸업	232		30.4	편부/모	23	2.9
		계	763		100.0	합계	805	100.0
아버지	무직, 전업주부	11	1.5	생활 수준	아주 잘산다	18	2.3	
	농축산업, 노동	26	3.4		잘사는 편이다	172	21.7	
	피고용 기술자	97	12.8		보통이다	555	70.0	
	자가상인	161	21.3		곤란한 편이다	37	4.7	
	사무직	19	2.5		곤란하다	10	1.3	
	공무원	196	25.9		합계	792	100.0	
	부모의 직업	작가, 예술가	19	2.5	학년	1학년	287명	36.2
		관리직	156	21.0		2학년	289명	36.5
		전문직	68	9.0		3학년	216명	27.3
		합계	756	100.0		계	792	100.0
어머니		무직, 전업주부	398	53.3		성차별 경험	가사	49
	농축산업, 노동	16	2.1	아들우대	68		11.4	
	피고용 기술자	23	3.1	생활규칙	27		4.6	
	자가상인	124	16.6	성고정관념	26		4.4	
	사무직	15	2.0	없다	398		66.6	
	공무원	72	9.6	기타	30		5.0	
	어머니	작가, 예술가	18	2.4	합계	598	100	
		관리직	37	5.0	아버지에 대한 불만	술, 담배	91	21.9
		전문직	44	5.9		용돈	29	7.0
		합계	747	100.0		무관심	34	8.2
혼인 형태	연애혼	451	61.0	잔소리, 욕설		66	16.0	
	중매혼	158	21.4	자녀이해부족	102	24.5		
	절충혼	130	17.6	기타	93	22.4		
	합계	739	100.0	합계	415	100.0		

표 2. 부모자녀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M(DMR)

부모자녀관련 변인	양성평등의식	빈도	가정적 성역할의식	사회적 성역할의식	성 고정 관념	성 규범		
						아들우대	여성중속	생활규칙
부의 학력	초졸	8	1.73ab	1.44a	2.35b	1.22	1.21a	2.19
	중졸	45	1.90b	2.06b	2.17ab	1.21	1.21a	2.28
	고졸	349	1.65ab	1.77ab	1.99ab	1.17	1.07ab	2.10
	대졸	368	1.50a	1.60ab	1.85a	1.11	1.05b	2.01
	F값		7.981	5.793	4.139	2.091	5.007	1.156
P		.000	.001	.006	.100	.002	.325	
모의 학력	초졸	11	2.31c	1.77ab	2.56b	1.27	1.39b	3.00b
	중졸	57	1.92b	2.01b	2.16a	1.17	1.11a	2.23a
	고졸	463	1.62a	1.76ab	1.95a	1.16	1.07a	2.08a
	대졸	232	1.44a	1.54a	1.89a	1.10	1.05a	2.00a
	F값		16.158	5.918	3.925	1.302	5.592	3.546
P		.000	.001	.009	.273	.001	.014	
부의 직업	무직·전업주부	11	1.65	1.77	1.95ab	1.05a	1.00	2.50
	농축수산업 노동	26	1.87b	1.96	1.85ab	1.30b	1.11	2.33
	피고용인·기술	97	1.60	1.68	1.90ab	1.13	1.09	2.05
	자가상인	161	1.69	1.74	2.15a	1.21	1.13	2.14
	사무직	19	1.75b	1.82	2.06ab	1.13	1.07	2.26
	공무원	196	1.58	1.68	1.91ab	1.15	1.04	2.11
	작가·예술가	19	1.56	1.97	2.13ab	1.04a	1.05	2.24
	관리직	156	1.56	1.70	1.90ab	1.13	1.05	1.92
	전문직	68	1.37a	1.47	1.76b	1.07	1.04	1.90
	F값		2.615	1.282	2.419	1.520	1.673	1.282
P		.008	.255	.029	.146	.101	.249	
모의 직업	무직·전업주부	398	1.59abc	1.73ab	1.93	1.13a	1.06ab	2.04ab
	농축수산업 노동	16	1.96d	2.13b	1.91	1.36b	1.21b	2.47b
	피고용인·기술자	23	1.68bcd	1.57a	2.08	1.12a	1.20b	1.96ab
	자가상인	124	1.74cd	1.75ab	2.16b	1.24ab	1.12ab	2.27b
	사무직	15	1.53abc	1.37a	1.96	1.01a	1.04ab	1.63a
	공무원	72	1.56abc	1.70ab	1.99	1.11a	1.03a	2.04ab
	작가·예술가	18	1.62abcd	1.78ab	1.99	1.14a	1.04a	2.19ab
	관리직	37	1.30a	1.47a	1.68a	1.12a	1.02a	1.99ab
	전문직	44	1.38ab	1.36a	1.69	1.13a	1.05ab	1.86ab
	F값		3.472	2.153	2.327	1.799	2.008	1.478
P		.001	.029	.018	.074	.037	.062	
결혼형태	연애혼	451	1.56a	1.69	1.92ab	1.11a	1.06	2.01
	중매혼	158	1.77b	1.78	2.04b	1.23b	1.10	2.23
	절충혼	130	1.52a	1.68	1.87a	1.15ab	1.06	2.10
	F값		8.906	.740	2.062	6.012	1.438	2.371
P		.000	.478	.128	.003	.238	.094	
생활수준	아주 잘산다	18	1.33a	1.17a	1.76a	1.07a	1.06a	2.00
	잘 사는 편이다	172	1.48ab	1.54ab	1.83a	1.08a	1.03a	1.92
	보통이다	555	1.62ab	1.76b	1.97a	1.16a	1.08a	2.10
	곤란한 편이다	37	1.74bc	1.76b	1.97a	1.22ab	1.05a	2.27
	곤란하다	10	2.06c	1.90b	2.58b	1.40b	1.37b	2.30
	F값		4.767	4.064	2.845	2.498	3.558	1.360
P		.001	.003	.023	.041	.007	.246	
가족형태	동성형제	207	1.58	1.71	1.95	1.09	1.08	2.04
	이성형제	446	1.61	1.72	1.95	1.17	1.06	2.10
	외동	14	1.48	1.57	2.12	1.07	1.21	2.14
	확대가족	90	1.54	1.63	1.88	1.14	1.04	1.90
	편부/모	23	1.72	1.78	2.19	1.20	1.13	2.50
F값		.665	.313	.963	1.672	1.585	1.639	
P		.617	.869	.427	.154	.176	.162	
학년	1학년	287	1.51a	1.63a	1.85a	1.12	1.05	1.85a
	2학년	289	1.61ab	1.63a	1.98ab	1.17	1.08	2.06b
	3학년	216	1.70b	1.91b	2.05b	1.14	1.09	2.37c
	F값		5.697	7.927	4.163	1.260	1.067	15.281
P		.003	.000	.016	.284	.344	.000	

\* P < 0.05 \*\* P < 0.01 \*\*\*P < 0.001

단에 비해 초졸이하(M=1.39, M=3.00)인 집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을 낮게 인식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가정적 성역할 의식과 성고정관념의 하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적 성역할 의식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농축수산업 및 노동(M=1.87), 사무직(M=1.75)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문직(M=1.37)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보인다고 인식하였다. 아버지의 성고정관념은 아버지가 농축수산업 및 노동(M=1.96)에 종사하거나 작가·예술가(M=1.97)인 집단에서 전문직(M=1.47)집단보다 더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보인다고 자녀들은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가정적(P<0.01)·사회적(P<0.05) 성역할 의식 및 성고정관념(P<0.05), 여성중속적(P<0.05) 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가정적 성역할 의식은 어머니가 관리직(M=1.30)인 경우보다 농축수산업 및 노동(M=1.96)에 종사하는 경우에 아버지의 양성평등적 의식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결혼형태에 따라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은 가정적 성역할 의식(P<0.001)과 아들우대(P<0.01)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가정적 성역할 의식에 있어서는 연애혼(M=1.56)과 절충혼(M=1.52) 집단이 중매혼(M=1.77) 집단보다 아버지가 양성적 의식을 보인다고 인식하였다. 아들우대 영역에서는 중매혼(M=1.23) 집단이 연애혼(M=1.11) 집단보다 아들우대 의식이 높아 자녀들은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을 낮게 지각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가정적(P<0.01)·사회적(P<0.01)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P<0.05) 및 여성중속(P<0.01), 아들우대(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만 성규범 영역중 생활규칙에서만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생활수준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아주 잘산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곤란하다'고 지각하는 집단보다 아버지가 양성평등적 의식을 지닌다고 보고 있었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는 가정적(P<0.01)·사회적(P<0.001) 성역할 의식, 성고정관념(P<0.05), 생활규칙(P<0.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년이 낮

은 집단에서 아버지가 양성평등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나 자녀 모두 성역할 사회화 의식이 강화될 수 있음으로 추론할 수 있다.

## 2. 부모자녀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P<0.001), 사회적 자아존중감(P<0.01),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P<0.05), 학교내 자아존중감(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아버지가 대졸인 경우가 초졸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M=2.88)인 경우가 기타의 경우보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P<0.001),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어머니가 대졸인 경우가 초졸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학력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P<0.001), 가정내 자아존중감(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M=3.12)이거나 전문직(M=3.22)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가정내 자아존중감은 아버지 직업이 작가 예술가(M=3.47)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P<0.05), 학교내 자아존중감(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M=3.22)인 경우가 농축수산



표 3. 부모자녀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M(DMR)

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련 변인	조졸	2.22a	2.06a	2.38a	3.08a
	중졸	2.67b	2.62b	3.03b	3.00ab
	고졸	2.88b	2.75b	3.13b	3.01ab
	대졸	3.04b	2.85b	3.22b	2.88b
	F값	7.839	4.834	3.296	3.011
	P	.000	.002	.020	.029
부의 학력	조졸	2.12a	2.40	2.78a	3.20
	중졸	2.79b	2.71	2.88ab	2.92
	고졸	2.90b	2.79	3.16ab	2.97
	대졸	3.10b	2.84	3.25b	2.92
	F값	10.168	1.660	3.552	.957
	P	.000	.174	.014	.414
부의 직업	무직·전업주부	2.68a	2.31	2.78a	3.08
	농축수산업 노동	2.88	2.73	3.18	3.02
	피고용인·기술	2.72a	2.64	3.12	2.93
	자가상인	2.84	2.77	2.97ab	3.05
	사무직	2.59a	2.82	2.75	2.87
	공무원	2.95	2.78	3.15	2.94
	작가·예술가	2.96	2.75	3.47c	2.96
	관리직	3.12b	2.82	3.31bc	2.92
	전문직	3.20b	2.95	3.36bc	2.91
	F값	4.809	1.574	3.196	0.705
	P	.000	.129	.001	.687
모의 직업	무직·전업주부	2.95	2.78	3.19	2.98
	농축수산업 노동	2.58a	2.47	2.78	3.02
	피고용인·기술자	2.75ab	2.76	3.07	3.01
	자가상인	2.85abc	2.78	3.04	3.06
	사무직	2.92abc	2.61	3.08	3.04
	공무원	2.97abc	2.75	3.12	2.70
	작가·예술가	3.04bc	2.86	2.96	3.03
	관리직	3.15bc	3.02	3.44	2.76
	전문직	3.22c	2.94	3.25	2.86
	F값	2.326	1.299	1.489	2.694
	P	.018	.241	.158	.006
결혼형태	연애혼	3.00b	2.85b	3.23a	2.93
	중매혼	2.75a	2.61a	2.92b	3.03
	설중혼	2.92b	2.77b	3.25a	2.91
	F값	7.619	6.896	8.951	1.602
	P	.001	.001	.000	.202
생활수준	아주 잘산다	3.23b	3.10d	3.73c	2.81a
	잘 사는 편이다	3.15b	3.07cd	3.15bc	2.85a
	보통이다	2.87ab	2.69bc	3.08b	2.96ab
	곤란한 편이다	2.88ab	2.62b	2.53a	3.30b
	곤란하다	2.48a	2.17a	2.11a	3.30b
	F값	7.406	12.495	21.266	5.095
P	.000	.000	.000	.000	
가족형태	동성형제	2.96	2.79	3.18	2.92
	이성형제	2.93	2.77	3.13	2.97
	외동	2.83	3.04	3.06	2.99
	확대가족	3.01	2.83	3.24b	2.96
	편부모	2.63	2.38	2.58a	3.13
	F값	1.413	2.337	2.883	.657
P	.228	.054	.022	.622	
학년	1학년	3.07a	2.79a	3.28a	2.97
	2학년	2.81a	2.68ab	2.99b	2.95
	3학년	2.91b	2.86b	3.16b	2.95
	F값	9.896	3.949	8.940	.101
	P	.000	.020	.000	.904

\* P < 0.05 \*\* P < 0.01 \*\*\*P < 0.001

업 및 노동(M=2.58)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내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어머니의 직업이 자가상인(M=3.05)인 경우가 공무원(M=2.70)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형태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P<0.01), 사회내 자아존중감(P<0.01), 가정내 자아존중감(P<0.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내 자아존중감은 결혼 형태가 연애혼과 절충혼인 경우가 중매혼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정내 자아존중감과 학교내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중매혼인 경우가 연애혼이나 절충혼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지각하는 생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P<0.001), 사회내 자아존중감(P<0.001), 가정내 자아존중감(P<0.001), 학교내 자아존중감(P<0.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Duncan's 사후 검증 결과 자녀가 자신의 가정생활수준을 잘산다(M=3.23, M=3.10, 3.73)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곤란하다(M=2.48, M=2.17, M=2.11)라고 답한 경우보다 총체적, 사회내, 가정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학교내 자아존중감은 곤란한 편이다, 곤란하다(M=3.30)라고 답한 경우가 아주 잘산다(M=2.81)고 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형편을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열심히하고 자신감있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생활수준이 높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결과이다.

3.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양성평등 의식의 영향력

총체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은 가정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성규범 영역중 아들우대에 의해 10.3% 설명되었으며(표 4 참조), 가정적 성역할 의식, 성고정관념, 성규범 영역중 아들우대영역의 점수가 낮아질수록 아버지의 양성평등 의식은 높아진다.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문항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즉 전통적 형태의 남녀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닐수록 자녀의 총체적 자아존중

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내에서 이들 고정관념을 없앨수록 자녀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Barnett(1981)의 연구에서 진보적인 성역할관념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심을 강조하고, 성취기대가 크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표 4. 총체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의 영향력

변 인	B	β	R <sup>2</sup>	F	P
가정적 성역할의식	3.864				
성고정관념	-.187	-.133*	0.103	15.271	.000
성규범(아들우대)	-.212	-.195***			
사회적 성역할의식	-.242	-.115**			
성규범(여성종속)	.167	-.055			
성규범(생활규칙)	.003	-.035			
성규범(생활규칙)	.002	-.019			

\* P < 0.05 \*\* P < 0.01 \*\*\*P < 0.001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성규범 중 생활규칙과 여성종속에 의해 8.4%가 설명되었다.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문항중 가정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성규범중 생활규칙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표 5.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대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의 영향력

변 인	B	β	R <sup>2</sup>	F	P
가정적 성역할의식	2.525		0.084	12.233	.000
성고정관념	.121	.116*			
사회적 성역할의식	0.136	.170***			
성규범(아들우대)	-.001	-.004			
성규범(아들우대)	-.057	-.026			
성규범(생활규칙)	-.075	-.103*			
성규범(생활규칙)	.084	.141***			
성규범(여성종속)	-.075	-.103*			

\* P < 0.05 \*\* P < 0.01 \*\*\*P < 0.001

종속 점수가 낮아질수록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즉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중 가정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성규범중 생활규칙이 양성차별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고정관념 중 여성종속이 양성평등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이분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가부장 즉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을 차별의 대상인 딸들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련 변인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은 아버지의 학력(가정적·사회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및 여성종속 영역), 어머니의 학력(가정적·사회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및 여성종속, 생활규칙 영역), 아버지의 직업(성역할 의식과 성고정관념 영역), 어머니의 직업(가정적·사회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및 여성종속 영역), 결혼형태(가정적, 아들우대 영역), 그리고 자녀의 학년(가정적·사회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생활규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생활수준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부모자녀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으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여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인 집단이, 부모가 연애혼일 경우,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여러 환경이 좋아야만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본인의 열등한 환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의식은 거의 모든 변인들간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주변환경의 영향력이 보여주는 결과이며, 좋은 환경과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것은 미래의 성숙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영역이었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중에서 가정적 성역할의식, 성고정관념, 성규범중 아들우대 영역이 총체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성고정관념, 성규범중 생활규칙과 여성종속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밝히고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조사대상을 전라북도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가 지각한 양성평등의식과 행동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성고정관념을 지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은 양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지각과 아버지 지각의 차이를 밝히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접촉시간이 한정된 한국사회의 실정에서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양성평등은 남과 여의 양자간의 관계를 떠날 수 없으므로 아버지 혼자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보다 많은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있는 만큼 부모는 바람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한다. 성고정관념은 유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뿐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 사회, 대중매체에서도 지속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양성평등, 양성평등의식

별첨 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 의식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값	신뢰도 Cronbach's $\alpha$	
가정적 성역할의식	22 남자는 집안일을 할 줄 몰라도 된다.	0.650	0.8304	
	9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된다.	0.637		
	32 결혼한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꿀볼건이다	0.596		
	23 여자가 큰소리치거나 나서는 것이 아니다	0.545		
	21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다	0.517		
	18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0.516		
	3 여자라서 집안일을 해야한다	0.497		
	33 딸은 시집가면 소용없다	0.478		
	26 엄마의 결정보다 아버지의 결정이 중요하다	0.470		
사회적 성역할의식	12 여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야	0.765	0.7678	
	19 여자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편견	0.698		
	10 여자가 왜그렇게 월가닥이나	0.674		
	5 여자애가 조심해야지	0.600		
	4 이 계집애가	0.525		
성고정관념	28 사야될 것이 있으면 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한다	0.759	0.7279	
	30 아들과 딸이 동시에 등록금을 내야한다면 아들 먼저 주어야 한다	0.753		
	8 아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어야한다	0.622		
	13 남자가 더 많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한다	0.575		
성 규 범 영 역	아들우대	14 여자외복어는 사흘걸러 한번씩 패야한다	0.765	0.6700
		11 여자는 시집가면 장님, 귀머거리, 병어리로 지내야한다	0.688	
		15 암탉이올면 집안이 망한다	0.660	
	여성중속	24 여자는 집안일에 지장을 주지않을 정도에서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	0.729	0.7129
		25 여자는 직장일과 가정일에서 가정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한다	0.657	
		27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부담해야한다	0.571	
	생활규칙	2 여자라서 통행금지 시간이 있다.	0.807	0.7201
		1 여자는 외박하면 안된다	0.777	

참고문헌

- 김선옥(2000). 양성평등의 법적 장애, 호주제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김영규(1998). 여고생의 성역할 태도와 자아개념과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숙자 (1978).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 (1977). 학교교육을 통한 성역할관 수정방안, 신세호 외, 한국인의 남성 및 여성역할관, 한국 교육개발원.
- 박태은(1983). 도시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1980). 여성의취업과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운진(1990). 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구매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현(1983). 여고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용(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 이숙(1984). 한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1), 163-168.
- 이형실(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숙(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희(2001). 한국 가족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미(1999).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경(2000). 평등의식의 저해(형성)요인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정옥분(1986). 한미양국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2), 123-137.
- 정종희(1983). 어머니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윤(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천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2001). 전라북도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요구도 조사, 전라북도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대토론회 자료집.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한기숙(2000).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이 성역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개발 연구보고서.
- 현영자(2000).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역할 정체감 및 의식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
- Coopersmith, S.(1982). Coopersmith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
- Ha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 Hurlock, E. B.(1950).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Jacobson, A. H.(1962). Conflict of attitudes toward the roles of the husband and wife in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2), 56-61.
- Pope, McChale & Craighead.(1988). Self-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
- Mussen, Conger, Kagan & Huston,(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ergamon Press.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Hoffman, Lois wladis.(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 McLanahan, S. and G. Sandefur(1993).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Cambridge,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elius, Anne P.(1975). Emerging Sex-Role Attitudes, Expectations, and Strain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Popenoe, D.(1996). *Life Without Father*, N.Y.: The Free Press.
- Tomeh, Aida K.(1978). Sex-Role Orientation: An Analysis of Structural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Wolp. A. .M.(1976). *The Official Ideology for Girls, Education and the State Vol.2: Politics, Patriarchy and Practice*, eds. R. Dale et al., Ringmer, England : The Falmer Press 1981.

(2003. 10. 27 접수; 2003. 12. 17 채택)